

안선주 “굿 스타트”

에쓰오일 챔피언스 1R 4언더 1위

최혜용·장수화·김희정 공동 2위

안선주(22·하이마트·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MBC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안선주는 17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파72·6천50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잡아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지난 5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렸던 안선주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장타를 앞세워 전반기 마지막 대회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안선주는 6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뒤로 보낸 뒤 칩샷마저 짧아 1타를 잊어버렸지만 7번홀(파3)과 8번홀(파4)에서 1타씩을 줄이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안선주는 10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았고 11번홀(파4)에서 3m 버디 퍼트, 16번홀(파3)에서는 2m 버디 퍼트를 훌륭히 끌어들여 단독 1위로 나섰다.

올 시즌 처음 1라운드에서 선두에 오른 안선주는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마음을 비우고 썼는데 성적이 좋았다”며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어 힘들었는데 티샷만 페어웨이에 잘 올려 놓으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차이나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했던 최혜용(19·



안선주(22·하이마트)가 17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파72·6천509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로 막고 버디 5개를 잡아내 4언더파 68타를 쳤다.

KLPGA 제공



으랏차차! 왕기준 업어치기

17일 강원 양구군 종합체육관에서 전국 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가 열려 73kg급 결승 경기에서 왕기준(위쪽)이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례서 ‘여자 천하장사’ 가린다

26일부터 3일간 생활체육 전국씨름대회

제1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오는 26일부터 3일간 구례에서 열린다.

전국씨름협의회와 구례군씨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체중 60kg이하

또한 이번 대회 상금도 두둑하다. 통합장사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이, 체급별 장사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순수 여자대회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여장부가 출전 등,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MBC ESPN에서 개회식부터 생중계한다.

/동부취재부분=이진택기자 lk5826@

“FA제도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프로배구선수모임 ‘훈련 복귀 거부’ 등 갈등 장기화

FA(자유계약선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구단과 갈등을 빚은 프로배구 선수들이 이 제도가 선수들의 요구대로 시장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프로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모임(이하 선수모임)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17일 이동호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와 만나 같은 선수들의 입장장을 전달했다.

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선수모임이 요구하는 FA제도를 즉각 시행하고 연맹이 주장하는 남자 선수들의 FA자격 취득요건인 6시즌은 지나치게 길므로 4시즌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총재는 내년 시즌에 FA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FA제도가 올 시즌부터 시행되지 않거나 자격 취득요건이 선수들의 요구대로 단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공정위에 약관무효심사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2002년에도 프로야구 FA제도가 10년인 것은 너무 길어 무효라는 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OVO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을 이달에서 7월 말로 한 달 연장해 훈련거부에 들어간 선수모임과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J-리그 작년 수입 역대 최고

일본 프로축구 J-리그가 지난해 128억4천500만엔(약 1천673억4천만원)의 수입을 거둬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17일 일본 스포츠신문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J-리그는 전날 도쿄 JFA 하우스에서 이사회를 열어 2008년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J-리그의 지난해 수입은 128억4천500만엔으로 중계권과 스폰서 협찬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6년도보다 1억3천300만엔(약 17억3천300만원)이나 웃돌았다.

지출액은 총 125억9천500만엔(약 1천641억원)이었고, 각 클럽 분배금의 합계는 70억2천700만엔(약 915억원)에 달했다.

J-리그는 또 내년으로 이월하려던 이익금 4억엔 가운데 2억엔을 J1클럽(팀당 700만엔)과 J2클럽(팀당 400만엔)에 나눠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18일(목)

▲NBA 파이널 7차전 〈LA레이커스 : 올랜도〉(10 : 0-MBCESPN)

▲무등기 고교야구 〈군산상고 : 개성고〉(12 : 50-Xports)

▲프로야구 〈LG : 한화〉(18 : 10-KBS N스포츠) 〈롯데 : 삼성〉(18 : 15-Xports)

〈KIA : 두산〉(18 : 20-MBC ESPN), 〈SK : 히어로즈〉(18 : 20-SBS스포츠)

▲컨페더레이션스컵 〈미국 : 브라질〉(22 : 50-SBS스포츠)

위성미, US오픈 예선 탈락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US 여자오픈 골프대회 본선 출전에 실패했다.

위성미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로크빌의 우드모턴 골프장에서 열린 지역 예선 2라운드에서 74타를 쳐 합계 145

타에 그치며 30명에게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을 놓쳤다. 13세부터 US여자오픈에 해마다 출전해온 위성미는 올해는 1타 차로 본선에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됐다.

강지민(29)이 137타로 카롤리나 앤노(콜롬비아)와 함께 가장 좋은 성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144타까지 본선에 나가게 됐다.

/연합뉴스

男 탁구 차세대 에이스 서현덕 삼성생명행

올해 요코하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고교생 풍물 팀으로 1위를 차지한 남자 탁구의 차세대 에이스 서현덕(18·부천 중원고)이 실업 명문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는다.

삼성생명은 17일 서현덕과 입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입단 당시 초특급 대

우를 받았던 남자 간판 유승민에는 못미치지만 올해 진로가 결정된 고교 선수 중 최고 대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손 세이크핸드인 ‘탁구 천재’ 서현덕은 유남규 남자 대표팀 감독과 김택수 대우증권 감독, 유승민 등의 에이스 계보를 이어 차세대 간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

FA(자유계약선수)제도 도입을 염원하는 선수모임(이하 선수모임)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17일 이동호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와 만나 같은 선수들의 입장장을 전달했다.

그는 “공정위가 2002년에도 프로야구 FA제도가 10년인 것은 너무 길어 무효라는 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OVO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을 이달에서 7월 말로 한 달 연장해 훈련거부에 들어간 선수모임과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동호 총재는 내년 시즌에 FA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FA제도가 올 시즌부터 시행되지 않거나 자격 취득요건이 선수들의 요구대로 단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공정위에 약관무효심사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2002년에도 프로야구 FA제도가 10년인 것은 너무 길어 무효라는 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OVO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을 이달에서 7월 말로 한 달 연장해 훈련거부에 들어간 선수모임과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J-리그의 지난해 수입은 128억4천500만엔으로 중계권과 스폰서 협찬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6년도보다 1억3천300만엔(약 17억3천300만원)이나 웃돌았다.

지출액은 총 125억9천500만엔(약 1천641억원)이었고, 각 클럽 분배금의 합계는 70억2천700만엔(약 915억원)에 달했다.

J-리그는 또 내년으로 이월하려던 이익금 4억엔 가운데 2억엔을 J1클럽(팀당 700만엔)과 J2클럽(팀당 400만엔)에 나눠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법률경매(주)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062) 225-1688
H. 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아파트(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총가구수	감정가	최저가
서구	금호동 중앙아파트	23	18/12	9300만	8500만
	종암동 대주교크리스천	46	17/8	1억8500만	1억2900만
	차평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0만	8600만
	종암동 세한현대시티	33	18/4	1억4500만	1억1600만
	차평동 금호생명	52	17/11	2억6000만	1억200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0만	4400만
	차평동 리모델아파트	25	20/20	9300만	8500만
구	진월동 흰진짜미리	31	15/14	8400만	5880만
	백운동 사arks카이	32	15/9	9000만	6300만
	봉천동 라인	32	25/22	1억100만	7700만
	송하동 금호아파트	31	20/1	9000만	6300만
	봉선동 라인아파트	32	25/22	1억1000만	7700만
	봉선동 솔리스케이블	62	20/19	1억9600만	1억9600만
동구	운월동 리안힐파크	31	18/1	1억100만	7700만
	자신동 살림파크	32	15/11	9400만	6600만
	자신동 살림파크	46	15/1	1억5000만	1억100만
	운월동 리안아파트	50	11/3	1억4500만	1억100만
북구	운봉동 대주교크리스천	33	18/6	1억3500만	9400만
	종암동 루데나현대	33	14/5	1억7000만	1억1900만
	자평동 미리보마파크	31	14/4	9000만	6300만
	마곡동 삼의아파트	32	20/9	8200만	5700만
	마곡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1200만	8600만
	문현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9000만	1억3300만
	마곡동 삼익아파트	32	20/5	8000만	5600만
	종암동 삼익아파트	47	20/17	1억2500만	875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0만	8400만
광산구	운남동 주공4동	28	20/8	6300만	4400만
	신정동 해방상그릴라	34	15/12	1억3500만	9400